

익산다이로움 전국 최고 '입증'

행안부 우수상 수상 2년 연속 쾌거... 경제 위기 속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 인정

익산다이로움이 정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전국 최고의 지역화폐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다이로움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내년에도 최대 20%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지난 23일 시는 익산다이로움이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199개 지자체 가운데 1차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서면심사(40%)와 발표접수(6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익산다이로움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민생경제 실태를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기 위해 기여한 바를 높게 평가받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도내 최초 총전식 선불카드로 발행된 익산다이로움은 1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출시된 이후 2020년 1,828억원, 2021년 3,504억원, 올해 12월 20일 기준 5,604억원으로 누적발행액 1조 986억원을 달성했다.

중전 시 인센티브 10%, 소비촉진지원금 10% 등 최대 20%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할인혜택 덕분에 현재 가입자는 19만 6,465명까지 늘었으며 이는 익산시 전체 인구의 70%에 달한다.

시는 다이로움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확대해왔으며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였

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익산형 근로장년수당, 농민공익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당 지급 시 다이로움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골목상권 소비 율리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비촉진지원금 제외 업소를 월 상반기 50개소에서 하반기에 100개소까지 확대했으며 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조정했다.

이밖에도 중앙동 집중호우 피해 상가 지원(희망장터), 각종 골목상권이용, 명절 전통시장 정보기 등 각종 이벤트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익산다이로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 먹거리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비롯 관련 단체 · 전문가 시민 등 20명 구성

익산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먹거리 정책을 발굴한다.

시는 지난 22일 관련 단체와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먹거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먹거리위원회는 익산시 먹거리기본권 보장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추천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위원장인 정현을 시장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 심의와 자문, 먹거리 정책 이행 결과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이종구 위원을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익산시 먹거리위원회 개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방향과 먹거리사업 분야별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먹거리위원회 운영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현을 시장은 "먹거리위원회 출범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여 시민 누구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패키지 '완성'

농협·전북은행과 청년 주거안정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보다 확대된 내 집 마련 패키지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월세와 전세, 주택 구입 자금까지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익산형 주거안정 패키지를 완성하고 청년층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둔다.

시는 지난 23일 NH농협은행, 전북은행과 '신혼부부·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정현을 시장과 이상우 농협은행 익산시지부장, 김창주 전북은행 익산시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해당 사업은 주택가액 3억원 이하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은행 전산개별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앞서 추진 중인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 집 마련 지원 범위가 임차보증금 뿐 아니라 구입자금까지 확대되면서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월세부터 전세, 주택구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익산형 주거안정 패키지가 완성됐다"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포럼 개최

익산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난 23일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여성친화도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시의 여성친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재규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休)센터장 활동과 10년간 여성정책분야 연구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여성친화도시의 분야별 활

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조경숙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정영미 시의원, 김현숙 전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 백희정 한국 성인지예스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시 여성정책에 대해 열린 토론을 이어가는 등 여성친화도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시 관계자는 "익산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선진 도시이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합업 공공임대주택 건립... 주거안정 도모

익산 합업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3일 전북개발공사와 합업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합업을 오리 일원에 12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지원과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전북개발

공사는 각종 인허가 절차와 사업추진, 임대주택 관리·운영 등을 추진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합업 심장생~농공단지 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실제 용역비를 편성했다.

도로개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후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합업지역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근로자는 물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근 농공단지과 연계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을 하겠다"며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경력단절 여성 일터 복귀 지원

군산시가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구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군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탁 운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 뒤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명의 상담사가 지난 11월 말까지 8,294명의 취업상담을 진행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도 1,408명을 실

시했다.

새일여성인턴은 68명을 목표로 잡았으나 이보다 더 많은 85명을 연계했으며 경력단절 예방지원사업도 1,478건을 실시했다.

또 여성친화기업 협약과 여성친화기업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구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하수도정비 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추진

군산시는 지난 23일 자곡동, 미룡동, 선유도, 장지도 일원 등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하수도 시설 확충에 대응해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반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올해 상반기 착수한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 정비를 통해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이송·처리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강우 시 우수배출을 통해 내수침수를 예방하고자 5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금강노인복지관 위탁기관 군장대 산학협력단 선정

군산시는 지난 21일 '금강노인복지관 위탁운영기관 선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입동 소재 금강노인복지관의 위탁법인으로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위원회는 단독 접수된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금강노인복지관 위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5년간 금강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며,

군산시 노인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입동에 지난 2014년 건립된 금강노인복지관은 그동안 동군산지역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복지관 이용자 일일 500명, 경로식당 이용자 180명에 이르는 회원들을 확보, 동군산 지역의 대표적인 노인복지관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